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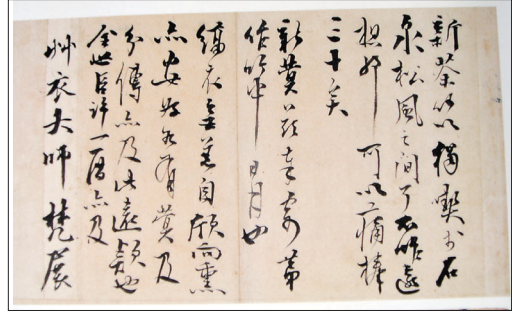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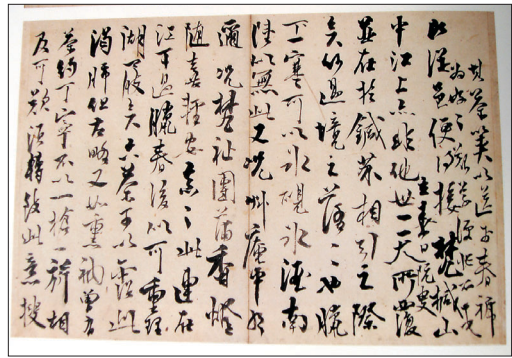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산중이나 강상 다른 세상 아는데...

추사는 제주 유배에서 풀려나 강상에 머물렀는데, 이곳은 지금의 금호동 일대로 추정된다. 그는 이곳에서 초의가 보내준 차를 마시며, 연경에서 입수된 <법원주림>, <종경록> 등 불경을 읽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호에 연재할 <완당전집> '여초의' 32신은 <나기목연집>에도 수록된 자료인데, 특이한 것은 '여초의' 32신의 말미 부분인 "新茶何以獨喫於石泉松風之間~金世臣許一曆亦及"의 내용이 추사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나기목연집>에서 확인되었고, 아울러 입춘(立春)에 쓴 편지였음도 밝혀진 것인데,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

곧 읍내 인편으로부터 스님의 편지를 받으니 산중이나 강상은 역시 다른 세상이 아니고, 한 하늘 아래에 침개가 서로 이끄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여찌 지난날엔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습니까. 세월 추위는 벼를 익게 하고, 술도 열게 합니다. (스님이 계신)남쪽 땅은 이런 일은 없을 듯하고, 더구나 초암에는 더욱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근래 스님은 복되고 기쁨이 이어져 단포(團蒲)와 향등(香燈)엔 기쁨이 이어지고, 편안한지 늘 염려됩니다. 나는 꼭 강상에 있었는데, 12월이 지내고 봄이 온 후야야 호남에 갈 나막신을 매만질 수 있을 듯합니다. (그가 보낸)여섯 양의 차는 나의 메마른 폐를 적실 만하지만 너무 적습니다. 또 향훈스님이 (나에게)차를 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정령 한 잎의 차도 보내지 않으니 아쉽습니다. 이 뜻을 (향훈에게) 전하고, 그의 차 바꾸기를 뒤져서 봄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쓰기 어렵고, 인편도 바빠하니 이만 줄입니다. 안 노인



<나기목연집>에도 수록된 <완당전집> '여초의' 32신.

새 차는 어찌 술바람 불고, 물 좋은 산 속에서(石泉松風) 홀로 마시면서 멀리 있는 나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삼십 봉을 쳐서 아프게 할 만합니다. 새 달력을 보냅니다. 다만 대 나무 우거진(일지암)곳에서 세월을 보내시지요. 호의도 없고 없으신지요. 자흔과 향훈도 편안하고 잘 지내지요. 이들에게도 각각 달력을 보낸 것이니 나누어 주시고, 아울러 이 편지를 보내는 정성을 전해주소. 김세신에게도 달력을 전해주소(即從金便得接世新)山中江上亦非他世 一天所覆唯在於鍼斧相引之際矣 何過境之落落也 臘下一寒可以冰硯水

酒 南陸似無此 又沈岫庵中耶 邈恍梵社團蒲香燈 隨喜輕安念此 此連在江干過臘春後 似可重理湖 矣 六茶可以露此渴腸但太略 又與熏衲 曾有茶約 丁寧 不以一槍一 珮及 可歎 須轉致此意 搜其茶 以送 於春禪 爲好爲好 艱草便忙不式 阮 新茶 何以獨喫於石泉松風之間了 不作遠想耶 可以痛棒 三十矣 新葉茲奉寄 第作竹中日月也 縞衣無恙 自欣向熏亦安好 各有冀及分傳 亦及此遠款也 金世 臣許一曆亦及)

초의의 편지를 받은 후, 그 기쁨을 "산중이나 강상은 역시 다른 세상이 아는데, 어찌 지난날엔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는가"라고 하였다.

이미 입춘인데도 "세월 추위는 벼를 익게 하고, 술도 열게" 하지만 남쪽 땅, 일지암에 있는 초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추위가 지나고, 봄이 오면 벼를 찾아갈 계획을 세우면서 "호남에 갈 나막신을 매만질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추사의 말 속엔 풍류와 설렘이 함께 묻어났다. 그에게 초의가 보낸 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미 여러 편의 편지에서도 확인되지만 간절한 결명(茗茗)의 변은 "홀로 마시면서 멀리 있는 나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까. 삼십 봉을 쳐서 아프게 할 만하다"고 한 것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초의의 제자 향훈도 추사에게 간간히 차를 보낸 인물이자. 추사는 향훈을 위해 '다삼매(茶三味)'를 써 보냈는데, 추사의 절필(絶筆)은 이런 인연으로 세상에 전해진 것이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근본 탐구'는 내 원력 내 자리서 최선 다할 뿐

취임 240일 맞는 변영섭 문화재청장

'울산 반구대 암각화, 그리고 불교' 올해 3월 18일 취임한 변영섭 문화재청장을 설명하는 키워드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 운동을 10년 넘게 일선에서 주도해 온 활동가이고 높은 신심을 가진 불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 사랑이 지극해 변 청장에게 세간이 붙인 별명은 '반구대 청장', 일명 '반 청장'이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 만큼 문화유산 보존에 깊은 애정이 있다는 이야기다.

11월 12일로 변 청장의 취임 240여 일을 맞았다. 첫 여성 문화재청장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200여 일, 학자이자 문화재 활동가에서 전문 행정가로 변모한 그간의 소회를 먼저 물었다. 소화에 대한 질문에 변 청장은 가장 먼저 1997년 제정 공포된 '문화유산헌장'을 보여줬다.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유산의 자산'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헌장에는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당위성과 원칙이 담겨 있다고 운을 띄웠다. '원칙'을 통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다.

"취임한지 어느새 200일이 넘었네요. 그동안 우리 겨레의 삶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을 훌륭하게 지키고 활용하는데 좋은 방안을 찾아 몰두해 왔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좀 별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제가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인연이 아닐까 합니다. 저에게 문화재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문화재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폐사지 보존·활용 계획 수립
변 청장 취임 후 가장 이슈가 됐던 행보 중 하나는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의 해외 전시를 막아낸 것이다. 그의 결정에 불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해당 전시 박물관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국립중앙박물관이 간곡히 재요청함에 따라 반가사유상의 해외 전시가 이뤄지게 됐다.

변 청장은 한국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보 문화재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했다.

"국보 제83호는 그간 8회에 걸쳐 약 3,000일간 전시를 위해 해외로 반출된 바 있으며, 미국 내 다수 박물관을 순회하는 전시가 진행될 바 있어 물질적 피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운송 중 벌어질 불의의 사태를 염려해야 했습니다. 민족문화 보존과 문화 자존을 중시하는 국내 정서와 국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한 일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불교 문화재 보존과 활용으로 이어졌다. 특히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폐사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실제 변 청장은 취임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예방에서 폐사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2010년부터 전국 5400여 곳의 폐사지 조사사업을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사업도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폐사지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산간오지 소재 석탑 등 '나 홀로 문화재'에 대한 탐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역사적·학술 가치가 높은 중요 폐사지에 대한 발굴·정비 등을 통해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이 더욱 더 잘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통한 폐사지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변 청장이 대표적으로 꼽은 폐사지 복원은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황룡사 복원도 포함돼 있다. 10월 21일에는 황룡사 복원의 기반

인 '황룡사 연구센터' 착공식이 열렸다. "폐사지 보존과 활용은 중요도와 위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황룡사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천년 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새로이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 미탄사지, 보성 개흥사지, 동해 삼화사지 등 중요 폐사지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발굴조사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문화재 정책 '새 틀' 제시할 것
국가 지정·등록문화재 중 중요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2%. 그 중 불교문화재의 비중은 90%에 달한다. 불교문화재가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변 청장 역시 잘 숙지하고 있다. 그래서 고민도 많다. 변 청장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문화재 보존 정책을 위한 새로운 분법(分法)도 그 중 하나다.

또한 사찰과 문화재 주변 주민의 규제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 호감 정책을 추진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재 보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부처·지자체·종교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문화재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재 보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새 시대에 맞게

어머니 영향 받은 母胎 불자
매일 108배... '고요한 소리' 활동
채식 고수 "육식, 業 먹는 것"

미륵반가사유상 반출 논란은
문화재 보호 원칙 지킨 소신
반구대, 세계 가치 가진 유산
"위기의 외아들 살리는 심정"

유산 온전한 보존·활용이 '문화융성'
"원칙과 소신 행정으로 이룰 것"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법·제도 측면에서는 문화 및 자연 문화재 자원의 총체적 보호와 유네스코식 보존체계 도입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현 문화재보호법을 '문화 및 자연유산기본법' 체계로 개편하고 기존의 매장법, 고도법 분법 외에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등과 관련 새로운 분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반구대 보존'의 인연
변 청장의 문화재 사랑 중 빠지지 않는 것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다. 1971년 최초로 발견된 반구대 암각화는 문자가 없던 시절 그림으로 쓴 역사책이며, 우리나라 문화재의 만행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 중이다. 2003년 한국미술사학회장을 소임을 맡고 있던 당시 반구대 암각화와 인연을 맺었던 변 청장은 반구대보존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그만큼 반구대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그의 명함에는 반구대의 그림이 새겨져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도 반구대 보존 운동을 하면서 비롯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통해 면담을 신청했고 수용이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자료를 들고 가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굉장히 진중한 태도로 경청해줬고, 반구대 보존에 공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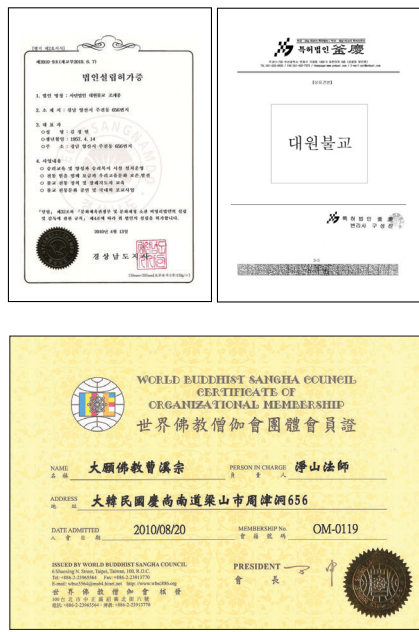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익산 미륵사지 복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변 청장은 폐사지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다.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증 안내 ◆

- 1) 입증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절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 010-3565-2462 हे오 원장 스님
 - 총무원 070-4187-4747
 - 중정예경실 055)364-4747
- 2) 입증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중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중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총회 총회회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철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범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윤오 재무부장 석범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부 원 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혜주 동원부장 석범원 의전부장 석근홍	문화원 문화원장 석철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범승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명모집"

범음(호소리, 질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 도량식, 중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 능노릇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제,
- 전 문 2년 - 시왕각매, 예수제, 영산제, 수록제,
-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 개강일 2014년 양력 1월 6일 (매주 월요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